2026 북중미 월드컵 내일 킥오프

12일 오전 4시 A조 멕시코와 남아공 개막전
'8강 목표' 대한민국, 오전 11시 체코와 첫 경기
48개국 참가해 12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 진행

'지구촌 최대의 축구 잔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 개막전은 12일 오전 4시(이하 한국시간) 멕시코시티스타디움에서 개최국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결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번 개막전은 16년 만에 성사된 얄궂은 월드컵 '리턴 매치'다.

두 팀은 공교롭게도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개막전에서도 맞붙어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바 있다.

올해 치른 8차례의 평가전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으며 무패 행진을 내달리는 멕시코는 홈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첫 승을 겨냥하며, '언더독' 남아공은 반전의 이변을 노린다.

제23회 FIFA 월드컵인 이번 대회는 개막전을 시작으로 7월 20일까지 39일간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개국에서 공동 개최된다.

이번 북중미 대회는 본선 진출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대폭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 월드컵이다.

참가국 확대에 따라 총경기 수 역시 64경기에서 104경기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회 운영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 4개국씩 12개 조(A~L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2위를 차지한 24개 팀에 더해 조 3위 중 성적이 좋은 8개 팀이 추가로 합류해 '32강 토너먼트'를 벌인다.

기존 16강전부터 시작되던 피 말리는 '단판 승부'가 한 단계 더 늘어난 셈이다.

조 3위에게도 토너먼트 진출의 기회가 열리면서, 조별리그 판도를 뒤흔들 수많은 '경우의 수'가 대회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출전 문턱이 낮아지면서 퀴라소, 요르단 등은 사상 처음으로 꿈의 무대를 밟게 됐지만, 우승을 노리는 강팀들의 체력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한국 대표팀은 원정 대회 역대 최고 성적인 8강 진출의 위업에 도전한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유럽 예선을 뚫고 올라온 복병 체코와 물러설 수 없는 1차전을 치른다.

이어 19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멕시코와 격돌하며, 25일 오전 10시에는 몬테레이로 이동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벌인다. 연합뉴스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2일(한국시간) 개막하는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은 개최국인 멕시코, 유럽의 복병 체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A조에서 32강 진출을 놓고 조별리그 경기를 벌인다. 사진은 대한민국 홍명보(맨 왼쪽부터), 멕시코 하비에르 아기레, 체코 미로슬라프 코우베크, 남아프리카 공화국 휴고 브로스 감독. 연합뉴스

미스터제주선발대회에서 그랑프리 영예를 안은 송기환(왼쪽)과 강세영.

송기환·강세영 올해 최고 '몸짱'으로…
2026 미스터제주선발대회 남녀 '그랑프리' 영예

송기환(제주시보디빌딩협회)과 강세영(짐승짐)이 제38회 미스터제주 선발대회 그랑프리에 오르며 올해 최고 몸짱으로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보디빌딩협회 주최로 지난 6일 제주시 봉개문화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오는 10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제주대표 선발전을 겸하면서 도내 최고의 기량을 보유한 보디빌더들이 대거 출전해 치열한 근육 전쟁을 펼쳤다.

남자부 최고 영예인 '그랑프리'는 -70㎏급 체급 우승을 차지한 송기환에게 돌아갔다. 송기환은 압도적인 데피니션과 완벽한 균형미를 선보이며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 찬사를 이끌어냈다.

치열했던 여자부 경기에서는 강세영이 비키니 체급 우승에 이어 최종 '그랑프리'까지 거머쥐는 영광을 안았다.

가장 뛰어난 근육 발달도를 보여준 선수에게 주어지는 '근육상'은 김민범(K휘트니스)이 선정됐으며, 무대 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연기를 펼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포즈상'은 고동현(제주경찰청)이 차지했다.

전국체전 선발의 핵심인 클래식 보디빌딩과 일반부 보디빌딩 종목에서는 베테랑들의 진가가 드러났다. 클래식보디빌딩 -175㎝급은 박은우(제주도협회), +175㎝급은 김민범(K휘트니스)이 우승을 차지했다. 보디빌딩 일반부는 -65㎏급 이누리(짐승짐), -70㎏급 송기환(제주시협회), -75㎏급 고동현(제주경찰청), -80㎏급 김현진(JJ노블휘트니스), -85㎏급 김민범(K휘트니스)이 각각 체급별 우승 트로피의 주인이 됐다. 특히 김민범은 일반부 보디빌딩을 비롯해 클래식피지크, 클래식보디빌딩까지 싹쓸이하며 근육상과 함께 대회 다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위영석기자

제주유도 문지현,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
제30회 청소년유도선수권 -57㎏급 정상

제주 경량급 유도의 차세대 기대주 문지현(남녕고2·사진)이 전국 무대에서 대학부 강호들을 연파하며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에 따르면 지난 8~9일 이틀간 경북 상주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0회 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겸 2026 아시아 및 세계 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제주 문지현이 여자고등부 -57㎏급 정상에 올랐다.

성산읍 출신으로 지난해 남녕고에 진학한 문지현은 올해 전국춘계연맹전과 양구평화컵대회에 정상에 오르는 등 여고부 -57㎏급 최강자로 부상해 고교시절 국가대표로 활약한 이현지(+78㎏급)에 버금가는 선수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위영석기자

2026 생활체육 스포츠페스티벌 오늘 개막
골프·농구·탁구 등 3개 종목 전국 동호인 900여명 참가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열정과 우정을 나누는 스포츠 축제가 청정 제주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국내외 동호인 간의 교류를 위한 '2026 생활체육동호인 스포츠페스티벌'이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제주도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첫 선을 보인 이후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번 페스티벌은 매년 참가 규모와 도민들의 관심이 확대되며 제주의 대표적인 생활체육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에서 960여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 선수들이 참가해 골프, 농구, 탁구 등 총 3개 종목에서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특히 골프 종목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국 동호인 선수단이 대거 합류하면서 단순한 국내 대회를 넘어 명실상부한 아시아 생활체육인들의 '국제 교류의 장'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위영석기자

당 축 선
CONGRATULATIONS

김 성 범
(前) 해양수산부 차관, (前)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

국회의원(서귀포시)

국회의원(서귀포시 선거구)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MG 신례새마을금고 | 신례새마을영농조합법인
신례새마을금고 여성디딤돌동호회 | 신례감귤작목회